

생산과잉된

난국타개는 생산자의 자율조절 밖에 없다

■ 이 이야기는 일본의 전국계란규격유통협의회 회장이며 농사조합법인 東富士 양계장 대표인 石田九市사장의 기발한 발상이라고나 할까, 작금의 일본양계업계는 엔고(円高)에 의한 환율 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공 대만 등지에서 계란이 쏟아져 들어오는 현상이며 지난해의 달걀 1kg당 생산비가 219엔으로 농림수산성 통계정보부가 발표한 것을 기준으로 할 때 금년도 4

월 현재 1kg당 155엔(M사이즈)으로 일본은 초비상상태에 놓여있다. 石田사장은 이 제안이 생존을 위한 하나의 힌트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생산조절은 솔직히 말해서 떠들기만 하고 있을 뿐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한다.(이하 요약소개)

-편집부-

달걀을 닭사료로 쓰자!!

○지금으로부터 약 20년전 유럽의 EC농업이 크게 문제가 됐던 일이 있다. 불란서나 이태리의 낙농가들은 냇가에 우유를 내버린 것이다. 당시 31세였던 필자는 큰 감명을 받았었다. 실은 그 시점에서 우리들은 벌써 오늘의 일본양계업계의 자세를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다. EC에서 농업문제가 토의된 것과 같이 우리 양계업계는 생산조절 등 여러가지 과제를 놓고 일을 했으나 구속력이 없는 탓으로 일이 잘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는 경영자 자신이 방법론을 생각해 치 않으면 안될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전번에 업계에서는 아프리카에 계란보내기운동을 전개했지만 경비부담의 문제로 실패한 일이 있다. 금년부터는 대만으로부터 1kg당 110엔 정도의 달걀이 들어올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경황 속에서 계란의 실제가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계가 스스로가 수급 비란스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필자는“달걀을 사료로 써야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지금은 쌀(白米)도 남으면 사료로 쓰이는 시대가 된 것이다. 계란 가격은 결국 수급관계에서 결정되므로 시세가 떨어지면 시장출하를 하지않는 연구가 필요하다. 남는다고 해서 달걀을 바다에도 버릴 수가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공해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닭사료로 쓰는 방법을 생각하여 실제로 일부 시험을 해봤다. 필자가 갖고있는 방사농장의 달걀 난황(卵黃)은 난유(卵油)를 만들고 난백(卵白)은 출하판매하고 있으나 작년 후반기부터 난백이 남아돌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값이 계속하락 하므로 약2~3톤의 난백을 4~5000수의 닭에 한 보름동안 일반사료와 혼합해서 저녁때에 급여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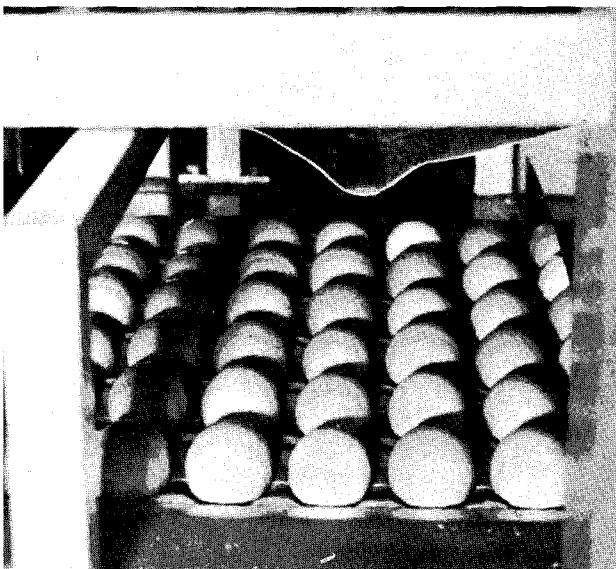
난백 같은것 급여해 봤자 먹을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급여해 봤더니 미친듯이 먹어 치우는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아직 발표단계는 아니지만 난백을 급여한 달걀은 일반계란에 비하여 산란으로부터 2~3일 경과한 상태에서의 하우스유닛트의 떨어지는 것이 둔화되는 것 같다.

물론 고단백의 것을 닭에 환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

이번에 쓴것이 난백뿐이지만 난백과 난황을 믹서기로 혼합해서 급여하면 날뛰면서 먹어치울 것이다.

○소비자는 계란값이 너무나 싸기 때문에 기분이나쁘다고들 한다. 필자는 일본의 계란값은 240~250엔/kg로 안정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장차 계란의 관세가 철폐되면 100%자급자족이란 있을 수 없다. 지금은 약육강식(弱肉強食)의 시대는 아닌것이다. 다른산업을 보더라도 큰 기업일수록 도산하고 있다. 코스트가 싸면 이긴다는 단순한 자본적이론은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업계는 알아야 한다.



양계업체만큼은 결코 과점화(寡占化)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큰 기업은 돈을 차입(借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뿐으로 그런 것은 진정한 경영이 아닌것이다.

이제부터의 양계는 여름철에 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가을, 겨울철에는 장차 다만 또는 한국의 달걀이 수입되기 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여름철의 난가(卵價)가 폭락할 때는 달걀을 사료로 이용해서 생산을 10~20% 절약해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컨트롤 하면 어떨까!

생산자 스스로가 생산량을 체크하는 기능을 가져야 하며 스스로가 조절기능을 수행하면서 경영해가는 것이 현대 양계가의 자세라고 본다.

수급조절의 수단으로서 사육수수를 감소시키는 것만으로는 외부압력에 대항할 수는 없다. 어떠한 큰 결단 없이는 국제화, 자유화 속에서 일본의 양계업체는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난가가 지금처럼 폭락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소비의 감퇴요인이 되고 있다.

필자가 경영하고 있는 방사농장(放飼農場)달걀은 한개 80엔을 받고 있지만 손님들은 좋아서 사 먹고 간다. 그런데 한개 8엔, 10엔의 달걀은 아무도 사먹지 않는 것이다.

필자 자신 지금까지 여러가지 일을 해왔고 우리 업계가 오늘과 같은 상태에 도달할 것을 예측했었고 이제는 생각하는 방법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당돌한 제안이겠지만 "남는 달걀을 닭에 먹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물론 국제경쟁에 대항할 수 있는 기술은 연마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수급조절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남는 달걀을 자기가 사육하고 있는 닭사료로 쓸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것은 사료비를 절약하는데도 연관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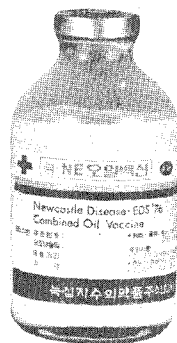
체면 좋게 아프리카에 공짜로 보내고 싶어도 운송비를 마련 못하는 것이 실태(實態)인 것이다.

이 제안이 하나의 힌트가 되었으면 한다. ☞

**국내최초로
오일백신 개발에
성공!**

자매품 ND 오일백신
EDS 오일백신

ND·EDS
혼합오일백신



NE 오일백신은

1. 면역이 잘되고
2. 면역이 오래 지속되며
3. 안전성이 우수합니다.

NE 오일백신은

500수분 (250ml)에
₩ 38,000입니다.

NE 오일백신

◆ 녹십자수의약품주식회사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동 1031 - 29

☎ 582-9181~5

본사·공장 : 경기도용인군기흥읍구갈리227 - 5

☎수원 83423/4